

‘KING 강인’ 70m 드리블 원더골

이강인, 프리메라리가 한국 선수 첫 멀티골... 팀 3-1 승리 이끌어
시즌 5골 4도움·최고 평점...라리가 사무국 “승리의 설계자” 찬사

한국 축구대표팀의 차세대 간판 이강인이 프로 데뷔 후 첫 멀티 골을 폭발하며 마요르카(스페인)에 역전승을 선물했다.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라리가)에서 1경기 2골을 넣은 이강인의 활약에 리그 사무국도 “승리의 설계자”라고 찬사를 보냈다.

이강인은 24일(한국시간) 스페인 마요르카의 비짓 마요르카 에스타디에서 열린 2022-2023 라리가 30라운드 헤타페와 홈 경기에서 왼쪽 미드필더로 출전,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면서 두 골을 넣어 마요르카의 3-1 역전승을 이끌었다.

전반 23분 선제 실점하고 끌려가던 후반 11분 동점골을 터뜨린 이강인은 2-1로 앞서던 경기 종료 직전 썩기골을 보냈다.

후반 11분 카를레스 알레냐가 페널티아크 왼쪽에서 찬 슈팅을 골키퍼가 쳐내자, 문전으로 쇄도한 이강인이 침착하게 밀어 넣었다.

6분 후 화려한 발재간을 통해 페널티지역으로 진입, 시원한 오른발 슈팅도 보여준 이강인은 후반 추가 시간에는 선수들을 모두 전방에 내보낸 헤타페의 후방을 홀로 질주했다.

하프 라인 아래부터 약 60m 이상을 내달린 이강인은 수비 견제 없이 페널티지역까지 전진했고,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반대편 골대 상단을 정확하게 찼다.

이는 2018-2019시즌 발렌시아를 통해 프로 무대를 밟은 이강인이 처음으로 작성한 멀티 골이다.

이강인은 2020년 9월 발렌시아 유니폼을 입고 뽀 프리시즌이나 2021년 7월 도쿄 올림픽 조별리그 경기에서는 2골을 넣은 적이 있지만 프로축구

정규리그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올 시즌 공격포인트도 5골 4도움으로 올랐다. 맹활약한 이강인은 라리가가 뽑은 공식 경기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라리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강인에게 “이번 승리의 설계자”라는 수식어를 붙이며 “훌륭한 경기를 펼쳤다”고 조명했다. 그라운드 경합에서 6차례 이겼다는 경기 지표도 함께 게재했다.

이강인은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라리가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는 기록의 주인공이 되는 영예도 누렸다.

이강인에 앞서 이천수(은퇴), 박주영(울산) 등 공격수가 라리가에서 뛰었지만 1경기에 2골 이상을 넣은 적은 없다.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 역시 양 팀 통틀어 최다인 8.55의 평점을 줬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강인은 총 세 차례 슈팅을 찾고, 득점 기회로 이어지는 ‘킵패스’도 2회 배달했다.

상대 반칙도 세 번을 끌어냈고, 전진 드리블도 2회 성공했다. 크로스도 팀에서 가장 많은 5번을 올리는 등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이끌었다.

이강인의 선제 득점에 더해 후반 19분 안토니오 라이오의 골로 역전한 마요르카는 후반 추가 실점 없이 승리를 지켰다.

연승을 달린 마요르카(11승 7무 12패·승점 40)는 10위로 올라섰다.

이강인은 경기 후 구단을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 “시즌 초반 설정한 목표에 한발 다가섰다. 계속 최대한 높은 순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마요르카의 이강인이 24일 스페인 마요르카의 비짓 마요르카 에스타디에서 열린 2022-2023 라리가 30라운드 헤타페와 홈 경기에서 3-1을 만드는 썩기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현종·최형우 활약 중위권 진입 노린다

T 타이거즈 전망대

KIA, NC 상대 안방서 연승 잇기
주말엔 LG 트윈스와 원정 3연전

분위기를 바꾼 ‘호랑이 군단’이 난적을 상대로 경쟁력을 평가받는다.

시즌 첫 스윙에 성공한 KIA 타이거즈가 상승세를 이어 5연패에 빠진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안방에서 연승 잇기에 나선다. 주말에는 잠실로 가서 LG 트윈스와 원정 3연전을 갖는다.

5연패에 빠졌지만 5위인 NC, SSG와 선두 싸움 중인 LG와의 원정 경기. 어려운 상대들과의 만남을 앞두고 KIA는 바닥을 찍고 상승세를 탄 모습이다.

KIA는 지난 주말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 3연전을 싸늘이 하면서 4승 2패로 한 주를 마감했다. 타선이 움직이면서 KIA의 성적이 달라졌다.

KIA는 지난 주 6경기에서 0.294의 타율을 기록하면서 팀 타율 1위에 자리했다. 홈런은 3개 밖에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모두 승리를 부른 영양가 만점의 ‘결정타’가 됐다.

지난 주 2개의 홈런을 책임진 최형우는 21일 삼성전에서 2-4로 뒤진 9회말 무사 1·2루에서 끝내기 스리런을 장식했다. 23일에는 4-3의 아슬한 리드 상황에서 중앙 담장을 가른 비거리 130m의 대형 솔로포를 날리면서 시즌 첫 스윙스의 주인공이 됐다.

22일에는 변우혁이 1회부터 생애 첫 만루포를 날리고 그라운드를 돌았다.

마운드에도 호재가 있다.

메디나가 불안한 모습을 이어갔지만 앤더슨·양현종이 선발진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나란히 승리 투수가 됐다. 이외에도 안정감이 더해지면서 지난 주 5.2이닝 무실점으로 시즌 2승째에 성공했다.

무엇보다 불펜이 ‘완전체’가 됐다. 팔꿈치 뺏조각 수술 이후 재활을 해왔던 장현식이 23일 삼성전을 통해 복귀전을 치렀다. 퓨처스 리그에서 6경기를 소화하면서 차분하게 시즌 준비를 했던 장현식은 8회초 2점 차의 부담 많은 상황에서 좋은 피칭을 선보이면서 복귀전에서 홀드를 기록했다.

풍성해진 좌완 불펜진, 오히려 우완 불펜 고민을 했던 입장에서 장현식-전상현-정해영으로 이어지는 ‘J트리오’의 재구성이 반갑다.



양현종

주말 LG와의 뒷심 싸움의 동력을 얻은 KIA는 ‘베테랑’들을 주목하고 있다.

마운드에서는 양현종의 승리가 관심사다.

양현종은 지난 주 세 번째 등판 끝에 승리를 더하면서 KBO리그 통산 3번째 160승 투수가 됐다. 이번 주 다시 승리투수가 되면 한화 레전드 정민철(161승)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타석에서는 최형우의 질주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주 KBO리그 최다 2루타(465개) 새 주인공이 된 최형우는 홈런 2개도 기록하는 등 4할 타



최형우

율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했다. 나이를 잊은 베테랑의 활약에 KIA는 첫 스윙까지 이겼다.

최형우는 이제 ‘최다타점’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린다. 최다 타점 1위는 이승엽 두산 감독의 1498타점. 최형우는 지난 주 7타점을 더하면서 1472점을 기록하고 있다.

투-타 베테랑의 경험을 앞세운 KIA가 신예들의 패기 넘치는 플레이를 더해 중위권 진입을 이룰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토트넘, 시작 21분 만에 5골 허용...뉴캐슬에 1-6 대패

토트넘(잉글랜드)이 경기 시작 21분 만에 5골을 내주며 참패한 가운데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한 손흥민도 현지 매체들에 4~5점대의 아쉬운 평점을 받았다.

토트넘은 23일(한국시간) 영국 뉴캐슬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2022-2023 EPL 32라운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에서 1-6으로 완패했다.

원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후반 38분 히사카와와 교체될 때까지 83분간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점수 차를 줄일 골을 터뜨리지는 못했다.

세 차례 슈팅을 했지만 유효슈팅은 없었고, 어시스트도 작성하지 못했다.

오히려 팀의 세 번째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는 아쉬운 모습도 보였다.

전반 9분 하프라인 밑에서 에릭 다이어가 전한

패스를 받으려던 손흥민은 상대 선수와 강하게 충돌하며 공을 잃었고, 이를 탈취한 제이컵 퍼피가 기습적으로 찬 중거리 슈트인 빨랫줄처럼 날아가 반대편 골대 구석에 꽂혔다.

1-5로 끌려가던 후반 14분 손흥민은 팀 공격 작업이 정체된 중에도 주력을 살려 만회 득점을 노렸지만, 상대 육탄 방에 막혀 아쉬움을 삼키기도 했다.

역습 상황에서 원 측면을 한껏 내달리다가 중앙으로 돌파하며 수비수를 따돌린 후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찼지만, 문전에서 기다리던 수비수의 몸에 맞고 제 궤도를 벗어났다.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5.88의 평점을 매겼다. 영국 지역 매체 풋볼런던은 “공을 잃어 뉴캐슬의 세 번째 골로 연결됐지만, 그건 다이어의 패스가 형편없어서 손흥민이 근경에 처한 것”이라고 평했다. /연합뉴스

임성재-미첼, 2인 1조 PGA취리히 클래식 6위

임성재가 미국프로골프(PGA)투어 2인 1조 방식 취리히 클래식(총상금 860만 달러) 최종일에 기대했던 역전 우승은 이루지 못했다.

키스 미첼(미국)과 짝을 이뤄 출전한 임성재는 24일(한국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애번데일의 TPC 루이지애나(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이븐파 72타를 합작했다.

4라운드 합계 25언더파 263타를 적어낸 임성재와 미첼은 단독 6위로 대회를 마쳤다.

임성재는 이번 시즌 6번째 톱10 입상이자 2주 연속 톱10 진입이다. 미첼은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5위 이후 6경기 만에 시즌 네 번째 톱10에 들었다.

하지만 3라운드까지 환상의 팀워크를 뽐내며 내내 선두권을 지켰던 임성재와 미첼에게는 아쉬움이 남는 최종 라운드였다.

선두에 불과 1타차 2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임성재와 미첼은 1개의 볼을 번갈아 치는 이날은 호흡이 잘 맞지 않았다.

8번 홀까지는 버디 2개를 뽑아내며 버텼다. 6번 홀(파4) 보기 위기에서는 임성재의 칩샷 파 세이브가 주목받았다.

하지만 후반 들어 10번(파4), 12번 홀(파4) 정검다리 보기가 나오면서 우승 경쟁에서 밀려났다.

13번 홀(파4) 버디로 만회한 타수를 15번 홀(파4) 보기로 잃어 버는 추격할 힘을 잃고 말았다.

김시우와 김주형은 4언더파 68타를 때려 공동 7위(23언더파 265타)로 올라섰다. /연합뉴스



임성재

이날 1타를 줄인 안병훈과 김성현은 공동 13위(20언더파 268타)에 올랐고, 미국 교포 마이클 김과 함께 대회에 나선 노승열은 공동 19위(19언더파 269타)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우승은 닉 하디와 데이비스 라일리(이상 미국)에 돌아갔다.

둘은 7언더파 65타를 합작해 함께 30언더파 258타로 우승했다.

이 대회가 2인 1조 경기로 바뀐 이후 최스타 우승이다. 종전 기록은 작년 패트릭 캔틀레이와 젠더 쇼폴리(이상 미국)가 합작해낸 259타였다. /연합뉴스